

2023 철도의 날, 행복한 세상을 이끄는 대한민국 철도

- 6월 28일 철도의 날 기념식 개최... 유공자 105명 포상 등 철도인 격려
- 7월 5일까지 노선도로 보는 철도 특별 전시회도 개최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6월 28일 오후 3시 서울(웨스틴 조선)에서 어명소 제2차관을 비롯하여 철도업계 대표 및 관계자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「2023 철도의 날」 기념식을 개최한다.
 - * 2018년부터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기존 철도의 날(9.18)을 우리나라 최초 정부의 철도부서 창설일(1894.6.28.)로 변경하여 개최
-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철도협회, 국가철도공단, 한국철도공사, (주)에스알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모두가 함께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대한민국 철도가 만들겠다는 철도인의 염원을 담아 “행복한 세상을 이끄는 대한민국 철도”라는 주제로 열린다.
- 기념식에서는 철도차량, 건설, 전기, 신호,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산업발전과 해외철도시장 개척에 공헌하고, 철도사고 예방 등 철도안전에 기여한 유공자 총 105명에 대하여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.
- 한편, 철도의 날 기념식과 연계하여 철도 특별 전시회도 서울역(맞이방 3층)에서 6월 28일(수)부터 7월 5일(수)까지 개최한다.
 - 전시회에서는 경인철도 개통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‘철도노선도 변천사’를 통해 철도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작품 16점을 선보일 예정이다.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“지난 1월 발표한 ‘철도안전 강화대책’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3년을 철도안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, 모든 철도인이 다시 한번 안전제일을 가슴에 새기며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”을 당부하며,
 - “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제철도운송협정 만장일치 가입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철도 해외수주 활동도 적극 지원할 것”이라고 밝힐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오원만 (044-201-3938)
		담당자	사무관	장기영 (044-201-3939)



□ 행사개요

- (목적) 「철도의 날」 행사를 통해 국가 주요 교통수단인 철도의 위상 및 국민들의 철도 관심을 제고하고 철도 종사자 노고 격려
- (時/所) '23.6.28(水) 15:00~16:00, 웨스틴 조선 서울(서울 중구)
- (주최) 국토교통부
- (주관) 한국철도협회, 국가철도공단, 한국철도공사, (주)SR, 철도문화재단
- (주제) 행복한 세상을 이끄는 대한민국 철도
- (참석) 제2차관님, 국회의원, 철도국장, 철도협회장(공단이사장), 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, (주)SR사장, 전임청장, 철도원로 등 약 400여명
- (부대행사) 철도 특별 전시회(서울역 3층 맞이방)

□ 주요일정

- 개회 및 국민의례
- 기념영상 상영
- 개회사(한국철도협회회장)
- **유공자 시상**(국토교통부 제2차관)
 - * 장관표창 105명 중 8명 전수
- **축사**(국토교통부 제2차관)
- 기념 퍼포먼스
- 폐회